

정몽구와 노동자의 연봉 차이 58배!

# 통상임금 확대하라! 임금체계 개악 말라!

사측이 협상 시한인 3월 31일이 지났는데도 통상임금 확대는커녕, 임금체계 개악까지 시도하며 우리를 우롱하고 있다.

지난해 사측은 “1심 판결과 관계 없이” 통상임금 관련 합의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이 약속이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윤여철은 뻔뻔하게도 “통상임금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하고 말했다. 노동자연대 현대차모임을 포함해 좌파 활동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사측은 이 참에 임금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쳐 체계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려는 악랄한 의도도 드러냈다. 2일 제시한 ‘신임금체계’는 직무와 개별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화해, 노동자 단결을 해치고 임금을 깎으려는 것이다.

경총은 이 같은 “선도적” 임금체계 개악 시도를 칭찬하며, 한국 기업들의 임금이 도요타·폭스바겐 등과 비교해 “글로벌 경쟁력”이 없다고 했다. 우리의 임금을 더 낮추라는 주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정몽구와 직원들의 연봉 격차는 무려 58배나 됐다. 심지어 사측은 올해 주주 배당을 두 배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22퍼센트까지 늘리기로 했다(현재 6.2퍼센트). 올 한해 정몽구가 챙길 액수만 3백41억 원이

넘는다.

정부와 기성 언론들은 마치 우리 같은 대공장 노동자들 때문에 비정규직이 열악한 처지에 몰리는 듯이 몰아가지만, 우리의 등골을 빼먹는 것은 저들이다.

### 정몽구 밀어주려는 박근혜

박근혜는 이런 탐욕스런 자들을 지원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노사정위 “대타협”이란 위선도 던져버리고, 4월 입시국회에서 통상임금 법 개악을 밀어붙이고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임금체계 개악 등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현대차 노동자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정부는 통상임금 규정에 ‘재직요건’을 포함시켜, 현대차 같은 곳(전체 사업장의 3분의 1)에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을 어렵게 만들려 한다. 또한,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임금체계를 개악하려는 사측을 적극 뒷받침하려 한다.

사측에 맞선 투쟁과 함께 대정부 투쟁이 중요한 이유다. 지난해 통상임금 때처럼 사업장별 대응으로 각개약진해서는 안 되고, 정부의 법 개악과 가이드라인 제정에 맞서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과 함께 앞장서 싸워야 한다.



## 임금체계개선위에서 나와 즉각 투쟁에 돌입하자

지부 집행부는 그룹사연대회의 차원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연대회의는 최근 4월 중 정의권을 확보해 사측에 맞서겠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단지 위협에 그쳐서는 안 된다. 뻔뻔스럽게도 통상임금 확대를 못하겠다는 사측에 맞서 즉각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

이경훈 집행부는 최근 지부 신문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을] 지속”하며 “사측의 실무 협상 태도에 따라” 투쟁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악안을 강요하는 사측과의 협상 자리에서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박근혜 정부가 법 개악과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사측을 지원하는 마당에, 우리의 힘

을 보여 주지 않는 한 사측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임금체계개선위에서 나와 즉각 투쟁에 나서야 한다. 파업 계획을 실질화해야 한다.

### 4·24 총파업

사측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으려면, 박근혜 정부의 법 개악과 가이드

라인 추진에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총의 4·24 총파업에 힘있게 동참하고, 이를 디딤돌 삼아 민주노총-금속노조 등과 함께 투쟁을 더 전진시켜야 한다.

오늘 대의원대회는 이런 투쟁을 결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투쟁 조직을 실질화 해 저들의 질주를 저지하자!

# 사측의 '신임금체계',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일 사측이 제시한 '신임금체계'는 결코 수용해선 안 되는 독이다.

이 안의 골자는 각종 수당을 통폐합하고, 임금의 구성을 '기초급+직무급+부과급(직능급)+성과급'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차등을 없애려고 1987년에 만든 임금체계를 분쇄해, 노동자들끼리 경쟁을 조장하고 인건비를 줄이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직무급제는 직무별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독일 금속산업에선 17개 직무를 등급화 한 결과, 임금 차별이 고착화되고 노동자 60퍼센트가 임금 삭감의 대상이 됐다.

개인별 능력과 성과에 따른 부과급-성과급제는 인사고과의 부활을 뜻한다. 이는 노동자들이 사측 관리자들에게 줄 서게 만들고, 고령자와 '저성과자'의 임금 삭감도 부를 것이다.

사측은 당장에 반발을 무마하려고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은 보존"하고



사측이 칭찬하는 폭스바겐에서 노동자들은 직무성과급제, 이중임금제 등으로 임금이 대폭 깎였다.

일단 신입사원들의 임금을 깎겠다고 했다. 8+9 시행 때 했던 신입사원 차별을 더 노골화하겠다는 것이다.

단결을 해치는 이런 갈라치기를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 저임금층이 생겨나면 결국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도 하향 압력을 받는다. 미국 지엠에서도 이중임금제 도입 이후 노동

자들 대부분이 저임금에 내몰렸다. 이 같은 사측의 공격은 박근혜의 임금체계 개악 방향과 일치한다. 현대차에서 임금체계 개악이 관철된다면, 이는 다른 사업장들의 기준 모델이 될 것이다. 사측의 공격을 막아 내는 것은 전체 노동자들의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 사내하청·축타직 노동자 투쟁에 지지·연대하자

최근 비정규직지회가 본격적인 투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지회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민주노총 4·24 파업에 동참키로 하고, 곧 쟁의 조정신청을 거쳐 정규직 전환 등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려 한다.

그동안 사측은 신규채용을 강행하며, 금속노조-비정규직지회의 교섭 요구에 불응하고 오히려 탄압을 퍼부었다. 이경훈 집행부가 고집하고 있는 8·18 신규채용 합의가 이런 지회의 교섭 요구에 걸림돌이 됐다.

정규직 대의원들은 집행부에 8·18 합의 폐기를 촉구하며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에 적극 연대해야 한다.

한편, 신규채용은 얼마 전 <한겨레>가 폭로한 축타직 쪼개기 계약의 원인이기도 하다. 축타직 노동자들은 1년에 몇 차례씩 진행되는 신규채용 때마다 계약해지 됐다가, 다시 다른 공정으로 옮겨가 고용되곤 한다.

### 쪼개기 계약

사측은 불법파견 흔적을 지우는 데 축타직 노동자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잦은 공정 재배치와 고용 불안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사측은 야비하게도 상여금과 성과금을 주지 않으려고 축타직 노동자들을 해고했다가 다시 채용하길 반복하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불량이 났다고, 연월차를 사용했다고 자르는 경우도 있다.

지금 현대차에는 축타직 노동자가 벌써 3천 명이 넘는다. 대의원은 현대차지부가 이런 직고용 축타직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의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을 위해 나서자고 촉구해야 한다.

지금 축타직 노동자가 용기 있게 1인 시위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 노동자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 8+8 도입을 둘러싼 논란

## 사측의 생산량 보존 압박에 발목 잡혀선 안 된다

사측이 8+8 시행을 앞두고, UPH-UP과 추가노동시간 등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현장 조합원들의 분노가 상당하다.

그런데 최근 이경훈 집행부는 사측이 제시한 추가노동시간을 좀 줄이는 대신, UPH를 사측 안보다 좀 더 끌어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8+8 시행으로 인한 생산량을 보존해야 한다고 전제하고는, UPH-UP을 더 할 것이냐 추가노동시간을 더 할 것이냐를 따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의 생산량 보존 압박에 발목이 잡히면, 노동조건 후퇴

공격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전환배치 등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야 한다.

### 노동강도

한편, 이경훈 집행부는 8+8 시행을 위해 표준 M/H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이전 집행부의 합의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은 오래 전부터 표준 M/H가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생산량 부족분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라

고 말했다. 즉, 노동강도를 높이고 전 환배치를 용이하게 하려 한다.

게다가 이는 현장 통제력 약화도 노린다. 인력·노동조건 등에 관한 표준치를 강제해, 차종 변경, 설비 증설 등 때마다 현장 조합원·대의원들의 반발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전 집행부의 잘못된 합의를 비판하며, 사측의 공격에 단호히 맞서는 것이다.

많은 조합원, 대의원, 활동가들은 UPH-UP과 표준 M/H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대의원들은 집행부의 양보안 폐기를 촉구해야 한다.



### 노동자 정치 신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 연대** 를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http://wspaper.org>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도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동자 연대>를 함께 읽고 토론합시다

<노동자 연대>는 곳곳의 주요 노동자 투쟁 소식과 운동의 전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동자 연대>를 읽고 토론할 동지들을 기다립니다. 연락 주십시오

문의 : 정동석 (010-8363-5695)